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3. 20.(수) 11:00, (지면) 2024. 3. 21.(목) 조간 배포 2024. 3. 20.(수) 06:00

'먼 바다 위에서도 신속한 진료를!' 올해 180척에 해양 원격의료 지원

- 올해 원양 상선 및 원양 어선 180척에 해양 원격의료 지원 서비스 제공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원양선원을 대상으로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'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'을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.

원양 운항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은 근무 특성상 응급상황 및 치료 가능한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다.

이에,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위성통신으로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(부산대병원)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'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'을 시행하여 지난해까지 총 85,276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. 특히, 작년에는 160척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22,906건(응급·처치지도 969건, 건강상담 21,937건)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.

올해는 신규 20척의 선박을 추가하여 총 180척의 원양 상선 및 원양 어선에 근무하는 4,000여 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'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'을 통해 원양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,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선원의 의료복지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선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해운물류국 | 책임자 | 과 장 | 이민석 (044-200-5740) |
| | 선원정책과 | 담당자 | 사무관 | 소서진 (044-200-5747) |

참고 1

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개요

- (추진배경) 원양구역 항행선박 승선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한 선원의 의료 복지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시범사업 추진 필요
 - * 원양선박승선원의 의료지원이 미흡하여 치료 가능한 질환 방치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 필요성이 증대
- (사업개요)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와 선박에 위성통신 및 원격의료장비를 설치하여 선원(의료관리자)-의사 간 원격의료 실시
 - * (서비스개념) ①건강상담 서비스, ②의료지도 및 응급처치 지도 서비스
 - * (시스템구성) ①위성통신망을 이용한 해양원격의료시스템, ②의료장비 선내 탑재
- (사업대상) 장기 운항으로 육상과 격리되어 승선 선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원양구역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
 - * ('22) 140척, 3,000여명 → ('23) 160척, 3,500여명 → ('24) 180척, 4,000여명
- (서비스 내용) 응급상황 발생 시 처치지도, 만성질환(고혈압, 당뇨 등) 및 경증 질환(소화기, 피부 등) 건강상담·관리, 전문 의료정보 제공 등

- (응급·처치지도) 응급상황 발생 시 처치지도하고 외상이나 질환에 대해서 증상 발현 시 약물, 관리법 등에 대하여 자문·교육을 통해 처치지도 실시
- (건강상담) 환자가 일상적인 혈압·혈당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주기적으로 자가측정하여 의사에게 전송하고, 이를 통하여 의사는 환자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·교육 실시

(사례1) 선원 A씨가 배뇨 중 갑작스러운 찌릿한 통증과 함께 혈뇨가 발생했고 증세가 계속되고 호전이 되지 않아 의료자문을 요청함. 해양원격의료세트 내 소변 측정기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, 검사결과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확인되어 요로계 감염 가능성과 함께 의료시설에서 정밀진단을 통한 검진이 필요한 상황임을 안내함. 선박상황 상 즉각적인 병원 진료가 제한되어 병원 방문 전까지 경과 관찰 및 선박에서 가능한 조치사항 안내함. 선원 A씨는 선박 하선 후 병원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초기 자문 당시 비정상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확인됨.('23. 4월 완료)

(사례2) 선원 H씨가 일하던 중 부딪쳐 이마 피부가 깊게 찢어진 상태로 의료 상담을 요청함. 본 센터에서는 병원진료 및 외과 처치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병원 도착하기 전까지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경구 항생제, 진통제 복용 및 상처 부위 소독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교육 함.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하며 감염 여부, 환부 상태 확인함. 추후 병원 내원하여 진료 받은 상태이며, 감염 징후 없이 회복됨을 확인함.('23. 5월 완료)

(사례3) 선원 B씨가 혈압저하 및 좌측의 지속적인 흉통호소로 의료자문을 요청함. 심장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해양원격의료세트 내 심전도기를 사용하여 결과 송부 할 것과 필요시 복용 할 수 있는 혈관확장제 복용법을 안내함. 병원 이송하는 동안 흉통 등 경과 관찰함. 현지병원 도착하여 스텐트 시술 받은 후 회복함을 확인함.('23. 7월 완료)

(사례4) 선원 P씨가 일하던 중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피부 찢김 손상을 받아 의료 상담을 요청함. 본 센터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경구 항생제, 진통제 복용 권장 함. 또한 추가적인 손상 방지위해 손가락 부목 고정, 상처 부위 소독 방법 및 중요성을 교육하고, 손가락 자가 운동요법 등 안내함. 추후 병원 내원하여 진료 받은 상태이며, 감염 징후 없이 회복됨을 확인함.('23. 7월 완료)

(사례5) 선원 G씨가 두 달간 손 습진약 사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손바닥 피부가 벗겨지는 상태로 의료상담을 요청함. 만성 손 습진이 심한 상태로 의심되는 상태임. 스테로이드제 복용 및 크림 도포 안내함. 그 이외에 긁지 않도록 주의하며 환부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며, 건조할 시 보습제 바르도록 피부에 자극되는 행동 피하도록 안내함. 주기적으로 약물 조절하여 경과 관찰하였으며 1달 뒤 손바닥에 붉은 기, 피부 벗겨지는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음을 확인함. ('23. 8월 완료)

Korea Seafarer's Welfare & Employment Center

해양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

장기간 원양운항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원격진료 및 원격건강 모니터링 등 선원 건강복지증진을 지원합니다.



1

지원대상

-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장기운항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 승무 선원

2

지원내용

원격 진료 부산대학교병원(해양의료연구센터)

주요서비스

진료 : 위성 전화(화상)을 통해 경증 질환 진료·처방 및 선내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 지도

모니터링 : 선박에서 개인별 생체정보(혈압, 혈당, 소변검사, 심전도 등) 측정, 위성통신으로 송출된 정보를 병원에서 분석·피드백(만성질환에 적용)



원양선박



해양의료연구센터

① 모니터링 장비가동

② 환자상태 전송

⑤ 의료지도에 따른 처치

⑥ 환자 이송 또는 ②~⑤과정 반복

③ 환자상태 파악 및 과거 진료기록 조회

④ 처치지시 및 이송여부 결정



<원격의료상담 사진 ①>



<원격의료상담 사진②>